

비진학·미취업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함 병 수*

- I. 연구의 개요
- II.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집단의 실태 및 문제점
- III.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의 발생원인 분석
- IV.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방향과 구체적 방안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방이후 45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초등교육의 의무화,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함께 고등교육은 대중화 단계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발전과 교육기회확대의 이면에는 아직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며, 더우기 원하면서도 직업전선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수가 54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14세부터 22세까지의 비진학 청소년의 수는 100만명을 상회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최근 과열입시로 인하여 70%이상의 대입지원 청소년이 탈락하고 대학진학에 실패한 고교 졸업생이 50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입시에 실패한 청소년들이 개인적 측면에서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져 자칫 비행화 하기 쉬운 뿐만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조차 이러한 집단이 적체됨에 따라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어 정녕 국가적 낭비라 아니할 수 없으며 사회불안의 잠재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열어 줄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기본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 및 관계기관과 단체에서도 이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집단에 주목하고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는 일부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의 관심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중지(衆知)를 모아야 할 것

* 한국청소년연구원 책임연구원

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및 관련부처에서는 재수생문제, 청소년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둔 면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켜 나가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 특히 비진학·미취업자들에 관한 교육대책, 취업 및 사회대책 그리고 학부모(의식)대책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동안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교육내적 문제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사회적 대책 분야에 소홀해 온 것 같다. 최근 몇가지 연구들에서는 사회대책 분야에 논의는 있어 왔으나, 사회 구조적 요인이나 제도개선 대책에 중심이 두어지고, 보다 근본적이라 볼 수 있는 국민의식적 요인이나 학부모대책에 소홀해 온 것 같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를 중심과제로 삼고,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들을 탐색하여 교육 및 사회정책적 전환을 유도하고, 과열입시에 따른 청소년문제들을 부각시켜 대국민의 관심도를 재고하며, 나아가 비진학생의 인간권리 및 청소년 건전성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학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 감소등, 국민의식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집단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문제의 근본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며, 이에 따른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방향 탐색과 실천가능한 몇가지 중점적 대책방안을 교육대책 뿐만아니라, 취업및 사회대책, 그리고 학부모대책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주요내용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집단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여기서는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집단의 규모와 재수생 집단의 누적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관계를 파악하여 그 동향과 문제점의 심각성을 추출한다. 특히 비진학, 미취업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정신의학상의 문제점에서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의 심각성이 지적된다.

둘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집단의 발생원인을 진단한다. 여기서는 이들 집단의 생성 및 문제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원인들을 기존연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주요요인들을 교육내적 측면, 사회구조적 측면, 그리고 국민의식적 측면에서 추출하고 분석·진단한다.

셋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회변동의 추세와 대상집단을 전망하며 이에 따른 앞으로의 지향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대책을 마련한다. 이 대책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의 과제로서 교육적, 취업 및 사회적, 그리고 학부모의식 측면에서 각 영역별

2-3가지의 주요대책을 선정하여 각 대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다.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추진위에서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집단에 관련된 각종 문헌, 연구보고서, 통계자료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제한된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둘째,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계 전문가 청소년관련 단체에서도 참가하여 연구의 계획과 정책의 방향 설정 및 대안 제시등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여러차례의 검토를 받았다.

셋째, 전문가 및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서 및 의견서를 작성토록하고 이를 수집 분석하여 주요 우선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연구협의회를 통하여 이를 조정 확정하였다.

넷째, 집필자들의 다양한 의견 및 대책을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대책, 취업 및 사회대책, 학부모대책 분야로 나누어 각 조정책임자를 두어, 각영역별로 협의조정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연구의 한 형태로서 1990년 2월 한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기존연구 및 대책의 검토(서정화, 기존연구 및 대책의 회고와 반성 참조)를 바탕으로,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원인분석에 치중하기 보다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책방향 탐색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초적

이고 이론적 논의나 논거의 제시는 배제되었다. 향후 보다 근원적인 원인연구나 이론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본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의 실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 정책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I.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집단의 실태 및 문제점

1.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집단의 범주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세계에 나아가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때로는 이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기도 한다.

그런데 진학에 실패하여 일정하게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뚜렷하게 하는 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 즉 재수생이나 무직상태에 놓고 있다고 지칭되는 청소년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다른 유형의 청소년집단, 즉 학생신분의 청소년, 근로, 농어촌, 요보호 청소년 등과는 구별되지만, 하나의 집단범주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 일을 잃거나, 없는 청소년들은 각 유형 청소년집단의 경계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은 각 청소년집단의 경계지역에 산재해 있는 만큼 그 성격도 일정한 특성을 지니기 보다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이들 집단은 일이 없는 기간이나 실직 상태에서 볼 때, 장기간 그 기간이 누적되어온 청소년에서부터 반복실업을 거듭하는 청소년까지 집단 내부가 구조적으로 다층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사회학적 특성상 흔히 '주변인'으로

부를 수 있다면, 일이 없는 청소년집단은 '주변인 중의 주변인'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존재이다. 흔히 사회에서 일이 없는 이들 청소년집단을 '비행화의 우려집단' 혹은 '문제집단'등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상과 같이 다양하고 다층적인 이들 집단의 어느 일면의 경향성만을 지칭할 뿐이다.

여하튼 일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사회적·복지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이들이 일을 잃게된 경로 즉 진로경로에 대한 대책차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체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일정 연령이상 청소년들의 가능한 진로는 크게 일정한 직업을 갖게되는 취업행로와 상급학교로 진출하여 계속 학교교육체계에 머무는 진학의 경로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을 잃은 청소년의 대부분은 구직의사가 있으면서도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진학할 의사가 있지만 상급학교의 선발전에서 탈락한 경우이다. 즉 일을 잃은 청소년은 비진학·미취업의 진로유형에 따른 주변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비진학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참조: 김수일, 1983, 김지자, 1985) 이 연구의 취지상 진로경로 중심으로 정의하여, 준학교 또는 정시제 여하에 상관없이 기간학제에 해당되는 어떤 학교의 형태에도 진학하지 못한 경우로 간주한다. 이때 비진학 청소년에는 각급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지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진학기대를 가지고 시도하는 재수생군과 취업자 및 취업의사를 가졌지만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자 모두를 포함한다. (참조: 서정화외, 1986; 5)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은 각급학교 졸업자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취업의사를 가졌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으로 범주

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은 일이 없는 청소년집단이지만 일이 없는 청소년의 전체 양적 규모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일이 없는 것은 현재의 상태의미로 진학과 취업 이외의 다른 많은 경로로 유입될 수 있고, 비진학·미취업은 진로경로 중심의미를 가진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이 없는 상태 중심보다는 교육·사회적 대책차원에서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과도한 상급학교 진학 경향에 따라 야기되는 비진학의 진로경로 중심으로 이들을 인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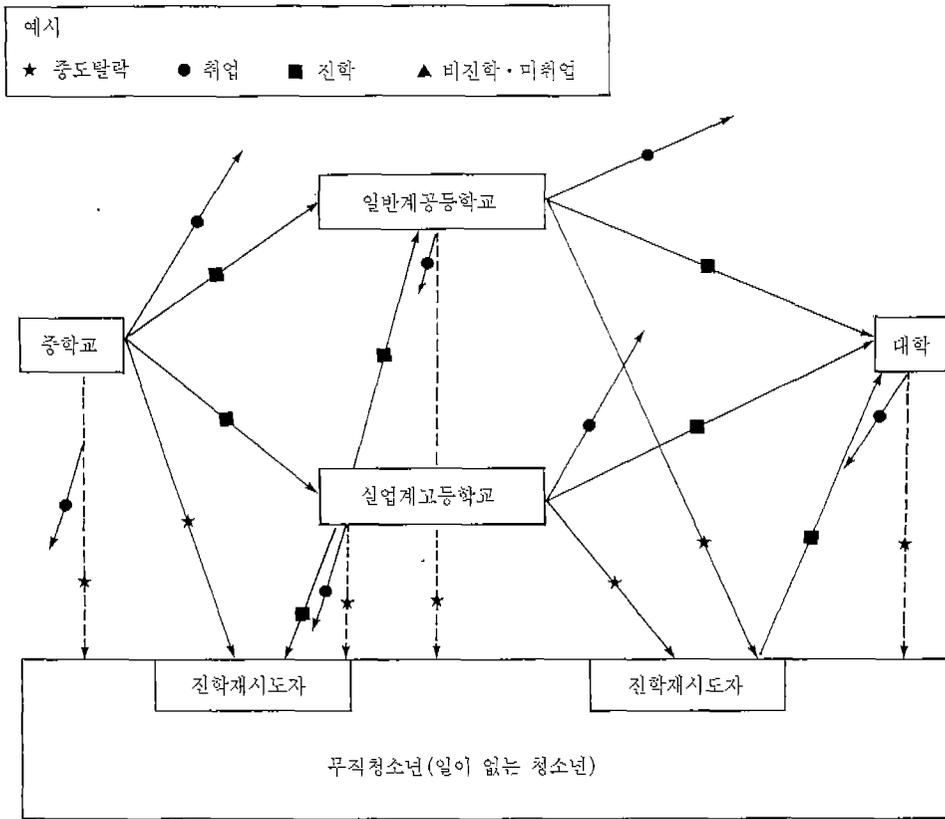
2.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양적 추산과 재수생의 누적

현재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일이 없는 청소년 집단의 양적 규모를 측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이들 청소년집단 범주 설정의 혼란과 생성경로별 또는 상태별 통계상의 추론의 난해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조사와 연구들은 각각 적게는 만4천여명에서 많게는 50여만명 이상으로 집계 또는 추정하고 있다(참조: 한국청소년연구원, 1989, 서정화외, 1986, 체육부, 1989, 장석민외, 1988).

따라서 여기서 이들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의 마련에 관심하는 연구의 목적상, 현재 일이 없는 상태의 청소년들의 전체 양적 규모의 추산보다는 기간학제로서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하여 진로경로별의 양적추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첫째, 전체의 양적규모의 추산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데는 기여할수



[그림 II-1] 각급학교별 청소년의 진로경로

있지만, 이들 청소년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유효한 정보로는 작용하지는 않으며, 둘째, 진로 경로별 추정은 전체적인 양의 추산이 불가능한 대신 진로경로마다의 문제집단과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인식제기와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경로를 각급학교 중심으로 볼 때, 첫째, 무직상태로의 가능 경로는 각급학교의 중퇴집단이다. (중·고중퇴자 합계는 약 74,000여명)

둘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하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집단을 들 수 있다. (중졸 비진학자 약 46,000명)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현재 중졸자의 97.4%가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희망

<표 II-1> 각급학교별 중퇴자

	중학교 중퇴자	고등학교 중퇴자	
		일반계	실업계
1985	29,052(1.0)	23,913(1.9)	33,973(3.8)
1987	28,322(1.1)	27,022(1.9)	29,303(3.5)
1989	28,025(1.2)	29,346(2.0)	27,007(3.2)

* 괄호안은 전체학생수의 백분율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5, 1987, 1989

<표 II-2> 중학교 졸업자 진로상황

	졸업자	진학희망자			진 학 자		
		일반계	실업계	계	일반계	실업계	계
1985	855,627 (100)	505,308	303,992	809,300 (94.6)	481,866	294,578	766,444 (90.7)
1987	932,552 (100)	558,117	332,969	891,086 (95.6)	537,743	318,926	856,669 (91.3)
1989	863,211 (100)	542,688	298,491	841,172 (97.4)	525,680	291,111	816,791 (94.6)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5, 1987, 1989

<표 II-3>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상황

	졸업자	진학희망자	진 학 자			취 업
			계*	대학**	전문대학	
1985	365,819 (100)	302,977 (82.8)	196,827 (53.8)	137,239 (37.5)	52,875 (14.5)	27,190 (7.4)
1987	412,146 (100)	347,202 (84.2)	220,338 (53.5)	149,022 (36.2)	64,180 (15.6)	33,738 (8.2)
1989	450,118 (100)	381,304 (84.7)	225,048 (49.9)	150,121 (33.4)	68,408 (15.2)	45,588 (10.1)

* 진학자 합계는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의 입학자 모두 합한 수치임.

** 대학진학자에는 대학과 교육대학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5, 1987, 1989

하고 있으며 전체 졸업자중 94.6%가 실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그런데 진학희망자중 진학자는 일반계가 96.9%, 실업계가 97.5% 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진학희망자중 비진학자는 진학을 재시도하거나 무직상태로 남게되는 것이다. 이들은 양적 규모면에서는 많지않다고 할 수 있으나 중학교의 교육목적상 이들은 일정한 기술을 아직 취득하기 이전단계이므로 취업상태에서도 반복실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비행청소년의 저연령화, 폭력화 등과 관련하여, 언론계(특히 라디오)등 사회에서 크게 문제화 집단

<표 II-4>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상황

	졸업자	진 학 희망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1985	276,535 (100)	83,033 (30.0)	36,910 (13.3)	143,214 (51.8)	44,162 (16.0)
1987	271,274 (100)	70,556 (25.9)	30,213 (11.1)	171,689 (63.3)	32,304 (11.9)
1989	259,771 (100)	56,557 (21.7)	24,728 (9.5)	193,612 (74.5)	16,455 (6.3)

으로 우려하고 있다(부록 설문지 분석 참조).

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의 진로경로를 일반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일반계 고졸자의 경우를 보면 점차 고등교육에로의 진학희망률은 증가한 반면에 진학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수용 증가율이 진학희망의 증가분보다 낮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진학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여, 1989년 현재 전체졸업자 33.4%만이 진학하고 있으며, 진학희망자의 39.4%를 수용하고 있다. 한편 일반계 고졸자의 취업률은 점차 증가해 10.1%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먼저 1989년 현재 진학희망자 중 비진학자는 156,256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개 다음 년도에 진학을 재희망하는 재수집단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졸업자 중 비진학 희망자로서 미취업자는 23,226명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취업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에 진학한 연후에 재차 보다 나은 대학으로 진학을 재시도하는 집단군을 고려한다면 진학재시도 집단은 추정수치를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업계 고졸자의 경우를 보면 진학희망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1989년 현재, 전체 졸업자의 21.7%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 진학자는 전체의 9.5%에 불과하며, 진학희망자중의 진학비율은 43.7% 정도이다. 이는 일반계 고졸자의

<표 II-5> 대입학력고사 실시 상황

	고졸자수	응 시 자 수			대학정원
		계	당해졸업	재수자	
1985	642,354	725,861 (100)	459,323 (63.3)	266,538 (36.7)	203,502
1987	683,420	732,931 (100)	501,115 (66.2)	230,816 (33.8)	-
1989	709,889	1,103,647 (100)	-	-	310,220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7, 1989

50.0%보다 조금 낮은 수치이다. 진학희망자 중 비진학자는 31,827명이며, 이들은 진학재시도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외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 무직의 경우는 급격히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1989년 현재 16,455명 정도이다.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상황을 통괄하여 본다면 비진학자의 경우 일반계가 156,256명, 실업계가 31,829명으로 총 188,085명으로, 추정 집계할 수 있다. 또한 군입대등을 제외한 순수 미취업자는 일반계 고졸자가 23,226명이며 실업계 고졸자는 16,455명에 이르러 총 39,681명이다. 이렇게 볼 때 비진학자 중 취업경우 등을 고려치 않는다면 1989년 현재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비진학·미취

<표 II-6>

대학지원 입학현황

	지 원 자			입 학 자		
	계	당해졸업자	재수자	계	당해졸업자	재수자
1985	511,810	300,120	200,247	201,934	125,116	73,143
1987	513,167	332,415	168,576	194,657	136,996	54,350
1989	817,109	490,859	298,361	191,817	129,054	59,660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7, 1989

〈표 II-7〉

전문대학지원 입학상황

	지 원 자			입 학 자		
	계	당해졸업자	재수자	계	당해졸업자	재수자
1985	178,125	112,573	62,476	108,483	69,053	37,859
1987	228,222	148,377	75,441	110,234	73,790	34,829
1989	274,338	164,098	103,568	114,615	69,738	42,704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7, 1989

업 청소년은 대략 227,766명 정도로 추정 집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1989년 현재 대입학력고사 실시상황을 보면 대학정원 30여만명에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무려 11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표 II-6〉과 〈II-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해졸업자의 지원자중 입학비율이 재수자의 지원자 중 입학비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89년도 재수자중 입학률이 대학의 경우 20.0%, 전문대학이 41.2%로 나타나, 진학재시도자중 평균 입학률을 30%로 추정한다면, 1989년도 재수시도자를 30만으로 추산할 때, 진학재시도자 중 비진학자는 대략 21만에 이른다. 따라서 1989년도에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양적규모는 당해 졸업자중 약 22만명과 진학재시도 실패자 21만명을 합해 총 43만여명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에 외 중·고 중퇴자(약 74,000명) 및 중졸 비진학자(약 46,000명)등 약 11만명을 고려하고 취업자수를 빼다 고 하더라도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규모는 약 50여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전체 양적규모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한편 각급학교별 진로 경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계 고졸자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과 실업계 고졸자의 그 수준은 이수한 교육내용의 성격상 문제의 질적 정도가 매우 이질적임에 틀림없다.

3.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비행의 동향과 문제점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거나 이들로 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은 실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관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들이 어느 청소년집단보다 비행 유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학생들과 같이 학업에 열중하지도 못하고, 근로 청소년들과 같이 직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도 못하다. 이들은,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채 뚜렷한 목적의식없이 부정적인 자아의식과 사회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수준도 낮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낮으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서정화, 1986) 불량집단과 어울리다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 범죄자의 직업별 상황을 보면 잘 이해될 수 있다. 〈표 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범죄자중 무직이 차지하

〈표 II-8〉

청소년범죄의 직업별 상황

(단위 : 명)

연도	계	무직	학생	농업	직공	노동	종업원	영마주이 구두담이	기타
1980	87,867 (100)	32,136 (36.6)	22,271 (25.3)	3,644 (4.1)	5,999 (6.8)	2,823 (3.2)	6,504 (7.4)	373 (0.4)	14,117 (16.2)
1984	104,450 (100)	35,493 (34.0)	33,144 (31.7)	2,411 (2.3)	6,497 (6.2)	2,981 (2.9)	8,301 (7.9)	181 (0.2)	15,442 (14.8)
1988	103,736 (100)	31,394 (30.3)	30,628 (29.5)	1,249 (1.2)	5,838 (5.6)	2,512 (2.4)	9,378 (9.1)	87 (0.1)	22,607 (21.8)

자료 : 대검찰청

주 : 군인범죄자, 공무원 범죄자 제외

는 비율이 '80년 이후 계속해서 상위를 보이고 있으며, '88년 현재 30.3%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무직청소년 집단의 전체크기를 고려한다면, 학생등 다른 집단에 비해 청소년 범죄의 상대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의 하나는 경제적 빈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청소년 집단에 비해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편이라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자신들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경제적 빈곤상태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원의 보고서(1989, 김정명외 : 61-63)에 따르면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89.1%가 월평균 소득 30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또는 미진학 사유로서 55.7%가 경제적 문제를 들고 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의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장석민외, 1988 : 72-90)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자신감과 신뢰감이 낮으며 가정의 안락정도, 부모의 애정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빈곤이 상급학교로의 진학가능성을 악화시키고, 따라서 소외감과 열등감을 낳게 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빈부격차의 심화는 하류계층 청소년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이들은 자포자기하여 사회의 생산적인 성원이 되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유희노동력으로, 또 비행유발의 잠재요인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 범죄의 생활정도별 상황을 살펴보면 하류층 가정 청소년들이 전체 청소년 범죄자중 차지하는 비율이 '80년 90.1%, '84년 88.5%, '88년 87.1%로써,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I-9〉 청소년범죄의 생활정도별 상황

(단위 : 명)

연도	계	하류	중류	상류
1980	87,962 (100)	79,232 (90.1)	8,406 (9.6)	324 (0.3)
1984	104,578 (100)	92,565 (88.5)	11,483 (11.0)	530 (0.5)
1988	104,052 (100)	90,607 (87.1)	12,883 (12.4)	562 (0.5)

〈표 II-10〉

청소년범죄의 교육정도별 상황

(단위: 명)

연도	계	불취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1984	104,578 (100)	794 (0.8)	13,314 (12.7)	34,623 (33.1)	42,609 (40.8)	3,690 (3.5)	9,548 (9.1)
1986	106,355 (100)	556 (0.5)	8,347 (7.8)	33,523 (31.5)	44,066 (41.4)	4,491 (4.2)	15,372 (14.5)
1988	104,052 (100)	468 (0.4)	5,986 (5.8)	30,321 (29.1)	46,140 (44.3)	4,141 (4.1)	16,996 (16.3)

그리고 교육개발원의 조사연구(1988:103)에 따르면 중퇴·비진학의 가장 많은 사유로서 '공부가 싫어서'(37.5%), 다음으로는 '성적불량'(35.6%)을 들고 있으며, 본연구원의 보고서(1989:59)에 따르면 무직·미진학 청소년으로 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상급학교 진학 실패임(72.1%)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보다 광범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입시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좌절과 실패를 가져다 준다.

이같은 청소년들의 학교 및 입시에서의 과열 경쟁 및 학습능력의 결손과 실패, 상급학교 진학의 실패등이 무직·방황하는 청소년 집단 형성의 주요 요인이며 결과적으로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겠다.

특히 청소년범죄의 교육정도별 상황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매년 증가하며 '88년에는 44.3%로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학교에서의 실패와 상급학교 진학의 좌절을 경험하고, 생활정도는 하류층이며 무직·방황하는 이들 청소년

들은 좌절감·열등감 부모의 기대를 성취하지 못한 죄책감, 교우·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고립화에서 오는 불안감, 유흥과 갈등, 사회의 냉대에 대한 반항 혹은 반감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역할갈등, 자아침체와 혼미, 아노미 현상 등의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기에 비행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III.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발생 원인들

1. 설문지 및 의견서 분석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연구 및 관련문헌을 통하여 밝혀진 원인 영역들과 관련 요인들을 바탕으로 설문지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반응과 의견을 취합하여 분석해 보았다. 설문지를 통한 원인 분석, 영역 구분 및 문제 발생의 주요원인에 대한 우선 순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의 발생원인 분석 및 접근방법에 있어 교육내적 요인들과 교육외적 요인들로 구분하였는데, 교육외적

요인영역에 사회구조적 요인영역과 국민의식적 요인영역 구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둘째, 교육내적 요인으로서 교육과정상의 문제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입시제도상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교육인구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만이 있었다. 또한 교육내적 원인을 교육과정내의 측면과 교육제도의 측면으로 구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교육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사회 구조적 요인들과 국민의식적 요인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요인 분석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셋째, 교육외적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것은 국민의식 구조의 측면이었으며, 취업구조상의 요인들, 임금구조상의 요인들이 우선순위로 지적되었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원인으로서 의식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우선 취업구조 및 임금구조 대책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의 설문지 분석을 바탕으로 발생원인들을 교육내적 요인, 취업 및 사회구조적 요인, 의식구조적 요인으로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의견서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제시되었던 주요발생원인에 대한 의견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내적 요인

- (1)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운영으로 인한 비진학자 및 학습부진 학생 소외 현상
- (2) 개인의 적성 개발 및 잠재력 개발 실패 (선택과목 부족)
- (3) 영어, 수학, 과목중시·지식위주 평가체제로 전인적 발달 저해

- (4) 교육과정 운영의 비효율성 및 진로지도 교육의 비효율성
- (5) 고등 교육기회의 한계
- (6) 단선형 교육제도
- (7) 인문고의 과도한 팽창
- (8) 평생교육 체제 미흡

2) 취업 및 사회구조적 요인

- (1) 고용기회, 임금, 승진 등 학력위주(고학력선호)
- (2) 인문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능력 및 취업기회 부족
- (3) 학교이외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대책 부족
- (4) 취업정보의 미비 및 홍보활동 부족
- (5) 열악한 취업조건

3) 국민의식적 요인

- (1) 학력위주의 개인주의적 교육열
- (2) 출세를 위한 도구적 교육관
- (3) 물질만능, 권력만능의 가치관
- (4) 고학력 선호의 과시적 혼인풍조
- (5) 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 및 부모의 잘못된 자녀관
- (6)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및 언론의 탈선조장과 관심저조

2. 분석모형의 설정

상기 요약된 요인들은 문제의 요인들을 필요 이상으로 나열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대책 연구의 후기단계에서는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문제의 원인을 보다 조직적이고, 심층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중점적 원인들을 다음과 같은 모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표 III>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발생 원인

관련 영역	관련 요인 구분	세부 관련 요인
1. 교육내적 영역	1) 교육내적 측면 2) 교육과정의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제도의 결함 · 단선형 교육제도 · 인문고의 과도한 팽창 · 고등교육 기회 제약(경직된 정원 정책) · 취업이후 진학의 사실상 불가능 · 진학위주의 교육과정운영 · 진로지도의 취약 · 인문고 및 실업고의 과학기술교육 미흡 · 산학협동의 취약성
2. 취업 및 사회 구조적 영역	1) 취업구조의 측면 2) 임금제도의 측면 3) 기타 사회구조의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기회의 부족 · 고학력 중심의 채용 요건 ·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 · 임금 및 승진상의 학력간 격차 · 고졸학력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희박(일류대학교 출신자의 우대) · 학교이외의 청소년 프로그램 부족 · 취업정보 미비 및 홍보활동 부족 · 군입대 연령상의 문제 및 재수학원의 난립
3. 국민의식구조적 영역	1) 사회풍토적 측면 2) 부모의 과열 교육열 3) 부모의 무관심 및 정책적 배려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을 명예로 생각하고, 능력이나 업적의 등가물로 생각하는 의식구조 · 고학력선호의 과시적 혼인풍조 · 부모의 잘못된 자녀관 및 과외수업 풍조 · 학부모와 학교교육의 연계성 부족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및 언론 대책 미흡

IV.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방향과 구체적 방안

1. 교육대책

1) 고등교육 문호개방과 확대방안

(1) 입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혁한다.

- 가) 학교소재지(지방) 주민자녀에 가산점
- 나) 사회봉사경력, 군필경력, 직업경력에 대한 가산점
- 다) 10년이상 직업경력자 대입 특혜부여
- 라) 전문대 졸업후 직장경력 3년이상인자 4년제 대입 무제한 허용
- 마) 방송통신대학은 모든 고졸자에게 개방, 지원자 전원수용
- (2) 대학 및 학과 신·증설은 대폭적으로 허

용하고, 학생정원조정을 대학자율에 맡긴다

- (3) 모든 고등교육기관(개방대·전문대·4년제 대학 야간제, 계절제, 정시제 교육과정운영을 허용함).
- (4) 모든 대학에 청강생 제도를 운영케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심사후 정규학생으로 편입케함.
- (5) 모든 대학의 재학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6) 학사편입의 무제한 허용
- (7) 산업체부설 교육기관의 학력을 인정함

2) 중등교육과정의 정상화 방안

- (1)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을 대입선발고사 준비가 되지 않도록,
 - 가) 성적우수자에 맞춘 교육이 아니라, 평균수준의 학생에 맞는 수업운영을 해야함
 - 나) 학생 각자가 자기적성에 맞는 과목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함
- (2) 일반계 고교생들에 대한 취업준비를 교육과정상에 대폭 반영해야 함
 - 가) 2학년 2학기부터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학관 수업을 허용함
 - 나) 기업체, 관공서에서의 현장실습 경험기회 확대
-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 가) 대학입시에서 선발시험 폐지, 고교 3년간의 생활 및 성적기록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선발함
 - 나) 영·수·국 등의 도구과목에 대한 획일적 강조 지양
- (4)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이 동일분야의 대학진학에 유리하도록 운영되

고, 여러 취업직종에 대한 고른 관심과 적성이 발현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 가)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진학에 불리하게 되어있는 점을 대폭시정되어야 함
- 나) 실업계 고교내에서의 전공변경이 학교간, 동일학교내에서 가능해야 함
- (5) 실업계와 일반계의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함
 - 가) 실업·일반계간의 상호 전학, 편입학, 이수과목 상호인정등 허용
 - 나) 실업·일반계간의 학교시험 상호 교체 이용 허용
- (6) 현행 학력고사에서의 이과, 문과 과목별 배점 비중차이 최소화 시킴
 - 가) 수학과 국어 배점 균등화
 - 나) 국·영·수 배점 비중 약화시키고, 학생별로 과목별 배점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7) 고등학교에서의 교과목 수를 축소 조정함
 - 가) 교련과 체육 통합
 - 나) 지리(한국, 세계)통합
 - 다) 국어(국어, 문법, 작문, 문법, 한문)의 축소통합
- (8) 암기 위주의 교육과정운영 지양, 삶에 대한 포괄적 이해 도모토록 교육과정을 운영함
 - 가) 100원 이상의 필수 도서목록 제시
 - 나) 각종 사회봉사활동 경험, 시상경력을 대학전형에 반영
 - 다) 학교내에서의 봉사경험 높이 평가(내신 성적 반영)
- (9) 학교행사의 내실화로 학교의 삶이 즐겁

고 의미 있도록 유도

- 가) 학생 선후배 간의 인간관계 교류증진
- 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고등학교 문화의 고급화 유도
(음악, 무용, 연극 등의 관람 등)
- 다) 학생과 지역사회의 교류기회 증대.

2. 취업 및 사회대책

1) 취업기회 및 훈련기회 증대

(1) 취업기회 확대 방안

- 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적정 경제성장 정책 추진(6-8% 성장률유지)
- 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 추진
 - (가)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 (나) 고용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확대
- 다)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 자영업의 선별적 육성 정책 시행
 - (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 지원 정책 강구
 - (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기술 서비스업종의 육성지원

(2) 직업훈련 기회 확충 방안

- 가) 공공직업훈련원의 훈련역량 확대
 - (가) 주야간 훈련인원의 증원 방안 강구
 - (나) 자영업종을 포함하여 취업율이 높은 직종의 훈련프로그램 개발 운영
- 나) 사업내 직업훈련의 활성화
 - (가) 사업내 직업훈련 역량 확대 조치 강구
 - (나) 사업내 직업훈련 역량 확대를 위하

여 규제조치 완화

- 다) 인정직업훈련의 역할 강화
 - (가) 인정직업훈련의 역량확대 방안 강구
 - (나) 인정직업훈련의 육성자원 정책 강구

(3) 취업알선 및 홍보기능 강화 방안

- 가) 취업 및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전국 Network형성
- 나) 취업 및 직업정보 전달을 위한 전국적 정보전달 체계 확립
 - (가) 리·동 단위 및 각급학교, 직업훈련원까지
 - (나) 컴퓨터 Network 전달시스템 강구
- 다) 고졸자를 위한 리쿠르투지 확대를 통한 올바른 직업관 계도 및 홍보활동강화

(4) 취업여건의 개선

- 가) 능력과 자격위주의 채용 및 인사관리 제도 시행 촉구
- 나) 학력간 과도한 임금격차 축소(학력간, 직종간, 남여간, 직급간)
- 다) 기능인 우대 풍토조성 정책 시행

2) 사회복지로서의 교육사회 건설

(1) 학교교육의 혁신과 사회화

- 가) 대학확장 프로그램 또는 계속교육학부의 설치를 통한 청소년의 자유로운 진학 허용
- 나)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박물관·전산소·체육관 및 각종 실습실의 개방 활용
- 다) 대학과 기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취업훈련 및 현직교육(O.J.T) 프로그램 개

발 운영

(2) 사회의 교실화

가) 기업체의 사내대학 및 대학원과정의 설립운영을 통한 취업자의 학위취득 요구 해결

(가) 학점제운영

(나) 위탁교육의 부분적 활용을 통한 대학과 산업체와의 연계

(다) 재정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부여

나) 평생교육법(가칭)의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사회교육의 진흥

다) 대학 및 각종 연구소의 정년퇴직한 고급인력을 활용한 시·도단위의 사회교육원(가칭)을 통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사회교육전문요원 양성

라) 청소년 대상 산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청소년 복지와 교육 강화

마) 군복무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의 의무화

(가) 지원명제도

(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의 강화로 군의 사회봉사의 기능과 사회전반의 인식 전환

바) 전문성 향상과 재충전을 위한 청소년 관련자원단체나 국가기관 종사자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사) 청소년연구원 전담기구의 기능강화와 재정지원을 통한 기초연구와 청소년 대책 강구

(3) 삶의 교육화

가) 학습기회와 건전한 사회인식을 위한 청소년 관련기관, 대중매체 및 산업체별 책임기 운동 전개

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생활과 소속감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설립·운영

다) 박물관 사적지·국립공원등의 무료 개방과 각종 할인제도의 확대

라) 청소년 유익업소의 권장(세제혜택 및 용자)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활동 제한과 청소년출입 규제 강화

3) 청소년 문화의 형성과 진작

(1) 체육공간의 확보

가) 지역별(동, 마을, 아파트 단위) 청소년 체육 절대공간 확보의 의무화

나) 각종 국·공립체육시설의 공개

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체육시설(농구장, 탁구대, 수영장)의 설치 운영

(2) 놀이공간의 확충

가) 지역별(구·읍단위) 청소년 시네마의 설치·운영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강화

나) 지역별 “청소년 놀이광장”의 설치·운영을 통한 청소년 놀이문화의 형성

다) 지역별 청소년회관의 설립 운영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함양

(가) 학교와 공동으로 각종 클럽활동을 활성화

(나) 청소년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아우트리치” 프로그램 운영

라)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종교단체의 시설 활용

마)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백화점 및 공공기관의 공간·활용 법제화

바) 청소년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확대·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의 체계화

3. 학부모 의식개혁 대책

1) 상담지도

- (1) 지역사회중심의 “학교돕기운동”을 통한 개인주의적 교육열 불식
- (2) 학부모의 진로지도능력 함양을 위한 학부모교실 운영
- (3) 출세주의 교육관의 탈피를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전개
- (4) 각종 민간지원 단체활동을 통한 자녀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
- (5) 언론매체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문제집단지 관점으로부터 관심집단으로의 인식유도

2) 언론매체 활용

- (1) 언론매체 종사자들에게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에 관한 문제의식 고취와 방송제작 및 기사 자료제공
- (2) 학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재 및 방송의 확대
- (3) 비진학·미취업청소년의 건전 지도를 위한 드라마, 다큐멘타리의 제작 공급
- (4) 비진학·미취업청소년에 관련된 방송과 신문 모니터링의 실시와 피드백
- (5) 설립될 교육전담방송국의 청소년 대상 시간대확보와 장기적 기획프로그램 개발

3) 건전한 사회풍토의 진작

- (1) 학력위주의 고용, 임금등 인사제도의 혁신
- (2) 사무직우선 직업관의 불식
- (3) 물질주의적 직업관의 타파

(4) 고학력선호의 과시적 혼인풍조의 지양

(5) 학교본위 교육제도의 개혁과 사회교육의 확충

V. 결론 및 제언

1989년 현재 고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수가 43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나 취업대책은 미흡하고 취약하다. 최근 과열입시로 인한 70%이상의 대입지원 청소년이 탈락하고 대학진학에 실패한 고교졸업생이 50여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높아지게 되었고 입시철을 맞아 대학입시제도 개선이나 제도권 내의 학생들을 위한 대책논의는 피상적이거나 활발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나 정책적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은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그리고 행정의 사각지대 속에서 소외와 좌절,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망황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는 자칫 사회구조적인 상황속에서 반감과 적개심을 유발해 청소년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들 집단은 복지의식의 향상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권리 및 생존을 위한 요구와 주장을 점차 다양하게 제기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학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열을 완화시키기 위해 배가의 노력등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이다. 한편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을 교육, 훈련시켜 취업시키는 일은 사회적 통합성의 구축과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서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과 중요대책의 방향과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연구 수행결과가 유관부처에 보고되고 사회에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수용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 실천되지 못한다면 이 보고서는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기왕의 정책연구들이나 보고서가 구체적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 원인들을 고려하면서 몇가지 제언을 첨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하는 문제는 관심부족의 문제다. 그동안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배려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미흡과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정책결정자들은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적, 사회적, 국민 의식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마련,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주무행정부서의 책임체계상의 문제다. 그동안 이들을 위한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전담부서가 수평적으로 구분되어 통합적으로 관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를 특정 부처(예, 체육청소년부)내에 설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정책실행상 그 실현 가능성과 실행에 있어서의 시간적 단계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기왕에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원칙적인 것들이 많고 실현가능성에 한계가 없지 않다. 또 대부분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질

의 것들이다. 따라서 정책실행 전담부서에서는 실현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실행지침을 수립하고 단기·장기의 시간적성격에 맞는 단계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은 정책추진력에 관한 것이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강력한 의지와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강력한 의지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현실적 재정지원은 청소년복지 기금의 활용이 강구될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대책연구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 자료 확보와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요구되는 연구비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강대근(1987), “현대산업사회와 청소년 실업문제”, 청년연구 제9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제기획원(1989), 한국의 사회지표
 _____(1989), 경제활동인구연보
 _____(1989), 주요경제지표
 _____(1989.12), 한국통계월보
 국무총리행정조정실(1985), 청소년문제개선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김신일(1983), “학력경쟁의 지양과 진로지도”, 초·중등교육 질개선을 위한 세미나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영모(1988), 청소년대책에 관한 연구, 체육부
 노동부(1988), 노동백서
 _____(1989), 노동백서

- (1984),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문교부(1988), 문교통계연보
- (1989), 문교통계연보
- (1989), 밝은 미래를 향한 우리교육
 서정화 외(1986),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대책
 의 방향탐색, 홍익대 교육연구소
- 이상주(1977),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와 의식구
 조,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이계창 외(1981), 청소년문제 종합진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재(1978), 비진학자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 한국교육개발원
- (1980), 한국교육의 정치경제학 서설
 …재수생 문제상황, 대책, 접근방법에 대
 한 재음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재·강상조·공은배(1978), 비진학자의 사
 회·경제·심리적 특성, 한국교육개발원
- 정원식 외(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청소년 대책위원회(1988), 청소년 백서
- (1989), 청소년 백서
- 최충옥(1982.12),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소
 고”, 학생생활 연구 제2집
- (1982.5),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방송”, 방송심의
 체육부(1988.5.),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87),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1987), 중퇴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
 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1984), 한국교육문제의 종합진단
- (1989), 한국의 교육지표
- 한국여성개발원(1985), 한국소년비행의 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청소년연구원(1989),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Griffins, Brenda S. & Charles T(1978)., *Juvenile Delinquency in Perspective*, N.J: Harper & Row.